비폭력 캠페인 기획하기

시위는 그 자체로는 특정 전쟁을 끝내거나 뿌리깊은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없다. 전 세계 곳곳의 참상을 직면하게 되면 단순히 악에 바쳐 대드는 등의 비폭력적 대응을 실천하는 것(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에 뛰어드는 것)은 쉽다. 시민단체들은 종종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곧바로 전술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아니면 일종의 '분석의 마비' 상태에 빠지는데 이것은 스스로와 타인에 대한 교육에만 전념하면서 실천을 등안시 하게 되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비폭력 캠페인의 힘은 전술들, 전략적 사고 및 참여자들의 실천이 창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발생한다.

어떤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것은 보통 캠페인, 즉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 및 행동들이다. 캠페인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공통의 이해 및 비전을 개발하고 목표를 확인하며 각 활동/행동에 함께하는 참가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할 연구, 교육 및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하나의 캠페인은 다양한 수준의 목표를 가진다. 그 첫 번째는 구체적인 캠페인 요구사항 혹은 공식적인 목표이다. 대부분의 캠페인들은 어떤 위계구조의 상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책에 도전한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의사결정 안에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층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혹은 저항(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으나 상대방(구체적인 부정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가 멈추게 하거나 우리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나의 캠페인은 또한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내부적인 목표들을 가진다. 비폭력캠페인은 사람들이 서로의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능력(사람들이 압제, 배제 및 폭력에 저항하고 참여, 평화 및 인권을 위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하고 훈련하는 것) 및 집단적인 힘 모두를 포괄한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조직자가될 수 있는지, 정치적인 전략가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운다.

캠페인들은 또한 우리의 비전, 즉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관해 소통해야 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권력구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이후 캠페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들은 우리가 고대하는 사회변화를 가능케 할 시민사회의 역능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트레이닝 및 캠페인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비폭력적 시민사회 역능강화의 모든 관점들(개인적인 역능강화, 공동체의 힘, 민중의 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비폭력 전략 개발을 위해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량을 길러야 한다.

효과적 전략 개발

창의적인 캠페인은 비폭력의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그리고 단체들이 비폭력캠페인의 힘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클 때 효과적인 캠페인 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아래에 제안된 연습 사례들은 단체들이 이러한 열정과 신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것은 또한 어떻게 사회적 변화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떻게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제안도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스스로가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적인 준비과정을 거치길 원 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과정은 그룹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중심하고 진행되며 이를 통 해 열정 및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은 처음에는 아마 '[[10-10 strategies]10/10 게임]]'을 하거나 참가자들에게 질문(참가자들이 알고 있는 효과적인 캠페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을 던져 토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단체 고유의 캠페인 지식을 나누고 싶어할 것이다. 대답을 종합해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사례 연구들('캠페인 사례 연구 가이드' 참조)은 과거 진행됐던 활동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청사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공식적인 결정들, 자원의 다양함 및 성공적인 비폭력캠페인의 인내심을 보여준다. 비폭력캠페인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영화 및 책들을 보기 위해선 자원에 관한 장(제10장)을 참조하라. 혹은 이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몇몇 사례들을 참고하거나 링크들을 확인하라.

만약 당신의 그룹이 이미 이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혹은 다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변화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 개발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효과적인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 유용한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 혹은 상황 명명하기 및 묘사하기
- 왜 이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분석하기
- 명확한 목표를 포함, 그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전 창출하기. 그리고
- 이러한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 개발하기

아래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다.

◎ 문제점 명명하기 및 묘사하기

매일의 일상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묘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삶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보다 의도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들은 사람들이 비위계적이며 포괄적인 과정에서 효과적인 비폭력 전략의 이해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점 혹은 상황에 이름을 붙이고 묘사를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단계치곤 너무 간단한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집단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정, 서로 다른 묘사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서로 다른 메세지 및 목표들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상황 혹은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는 것은 집단적인 행동을 발전시켜 나아감과 동시 에 개인들의 참여를 강화시킨다.



게임들: 그룹은 어떤 게임들이 그들의 이슈 및 스타일에 더욱 적합한 지에 따라, 전략적인 사고 및 캠페인 계획 세우기 전 과정에 거쳐 '나무 그리기'나 혹은 '권력축 분석하기' 게임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문제가 왜 존재하는지에 관해 분석하기

문제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왜 그 문제가 존재하는지, 잠재적으로 그 문제를 지원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저항, 건설적인 활동 등을 위한 진입지점을 찾기 위해 권력구조 분석을 해야 하며 분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

- 우리는 문제의 맥락 및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 누가 그 문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가?
-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누가 변화를 가능케 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지하는 구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이것에 저항하는가?)
-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가? (제2장, '젠더와 비폭력' 참조)
-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험은 무엇인가? (스왓 분석SWOT anaysis)
- 이 분석을 위해 어떤 이론이 필요한가?
- 비폭력적 사회변혁을 위한 우리의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가?



게임들: '나무 그리기' 혹은 '권력축 분석하기' 게임을 계속 사용. 누가 그 구조를 지지하고 저항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보려면 '우리 편 찾기' 게임을 이용. 이 게임은 행위자, 우리 편 및 반대자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 창출하기

캠페인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캠페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들은 단순한 대응 이상이 되지 못하고 시위는 묵살되기 쉽다. 비전은 야심 찬장기 목표들을 포함하곤 한다. 조금은 거창한 질문들(세계 평화, 경제 정의, 우리가 원하는 사회등)을 던지면서 그룹 내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 여기에서 대두될 문제는 이러한 장기적인 항해를 위한 첫 걸음(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들을 향해 가기 위한 중단기 목표들)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캠페인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정하는 데 딜레마에 직면한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지지를 받기 위해 캠페인은 단기 목표로 '가장 낮은 공통분모'를 선택할지 모른다. 즉,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낮은 공통분모 이상의 보다 깊은 무언가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면, 만약 이것이 사회적 변화를 위한 그 다음 발걸음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져올 어떠한 변화도 얕을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연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유토피아적 목표들은 달성 가능한 중간 단계의 목표들이 없다면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궁극적인 목표가 혁명적일 때 캠페인은 제한적이지만 받아들여질수 있는 징검다리를 필요로 한다.

목표들을 발전시킬 때 고려해야 할 질문들:

- 목표들은 실현 가능한가? 즉, 우리는 일정 기간 안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가?
- 사람들은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가?
- 그 목표는 단체의 목적 및 능력에 부합하는가?
- 목표들은 측정 가능한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가?
- 목표들이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 '승리'로 인해 사람들이 힘을 부여받았다고 느낄 것인가?



게임들: '나무 그리기' 게임의 질문들을 사용하라. 위 질문들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 '권력축 분석하기' - 권력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 단기 목표들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칙들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 질문들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 (메세지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위해선 '언론의 역할' 및 '항의의 목소리 전달하기' 중 '메세지 전달하기' 부분을 참고하라.

⊕ 전략 개발하기

문제점들,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 그것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목표들에 관해 묘사하기 및 분석하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발전시킬 차례이다. 전략 개발은 한 차례의 모임이나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의사결정,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및 창조적인 전략 개발의 모든 과정들을 의미한다.

다음은 비폭력캠페인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제6장 '비폭력운동의 사례들'은 각 캠페인들에서 얼마나 많은 캠페인의 기본 요소들이 사용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캠페인의 요소들

다음 질문들은 캠페인 전략 개발 과정을 돕기 위한 것들이다. 이것은 캠페인 초창기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전 과정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안내서는 그 과정 전체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 공통된 이해

존재하는 문제점이나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존재하는가?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 분석은 했는가? 그 분석이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구조를 포함하는가? 비폭력캠페인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우리는 모두 동의 하였는가?

● 비폭력 원칙

조직자들은 비폭력 원칙들에 대해 토론하고 동의했는가? 비폭력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진술되어 있는가? ('비폭력 행동의 원칙들' 및 '비폭력 가이드라인들'을 참조하라)

⊕ 연구 및 정보 수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진실을 찾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 입장을 증명'하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누가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안내하고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함해 연구하라. 듣기프로젝트 공동체설문조사(Listening Projects Community Surveys, www.listeningproject.info)는 이 연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듣기프로젝트는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유대를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활동가들이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들여다 보고 앞으로의 전술을 세우는 데 근거가 될 정보들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듣기프로젝트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미국에서 사용되었다.

⊕ 교육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가? 비폭력 활동가들의 역할은 연구를 캠페인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그 과정 전체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중적인 교육 및 의식화 과정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다가가길 원하는 서로 다른 지지층 및 협력자들을 고려한 좋은 교육용 자료들을 개발했는가? 다른 어떤 교육 과정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거리 공연)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언론을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트레이닝

전략을 개발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예를 들어 집단 과정, 전략적 계획세우기, 언론 활용 등)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트레이닝이 필요한가? 비폭력 행동을 하기 전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는 트레이닝을 제공하는가? 트레이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가? 우리 트레이닝이 압제 및 그것을 어떻게 다룰 지(사회적 맥락 및 그룹 내부 및 관계 차원 모두에서)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가? (제 3장 '말하기 대회' 및 '평화활동가를 위한 성인지적 대화'게임 참조.)

● 협력자들

누가 우리의 협력자들인가? 만약 우리가 좀 더 의사소통을 한다면 누가 협력자 혹은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연대해서 함께 활동하고 싶은 그룹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우리 편 찾기'게임을 이용해 잠재적인 협력자들을 알아보는 연습을 하라.)

① 협의

누구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확인했는가? 어떻게 그들과 앞으로 의사소통 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분명한가? 우리의 목표들이 우리 반대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한가?

● 건설적 활동/대안적 조직들

간디는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심지어 그것이 낡은 껍질 안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았다. 사회 변화의 핵심 요소로서 그것은 대중의 요구들(예를 들어 경제적 평등, 공동체적 유대감, 지역 산업 발전 등)을 충족시키고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건설적인 활동은 종종 서구의 캠페인에서는 실종되고 동양에서 강조되었다. 우리가 부정의에 대해 '노(no)'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예스(yes)'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의 비전 구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인 버스 시스템에 보이콧 하면서 대안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창출하는 것처럼 대안적인 조직들은 아마 일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입법 및 선거 활동

캠페인의 한 부분인 입법 및 선거 활동은 교육적인 전략인가 아니면 목표인가? 어떻게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의 목표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 시위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들을 최대한 잘 설명할 것인가? 비폭력행동의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했는가? ('행동의 방식들' 참조) 시위의 목표들은 명확한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중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우리 행동이 지역 사회에서 보기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 비폭력직접행동/시민불복종/시민저항(Civil Resistance)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가? 그 노력이 보다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고무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역효과를 낼 것인가? 그것이 그것 자체로 끝나기 보다는 우리의 이상에 어떤 진전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가? 그것이 우리의 상대편을 움직일 수 있는 압력을 가할 것인가? 누가 압력을 받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버밍험 감옥으로부터의 편지(Letter from a Birmingham Jail)'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직접행동인가요? 왜 연좌농성, 가두행진, 등등인가요? 보다 나은 방법을 위한 협상같은 건 없나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 맞아요. 그것이야말로 직접행동의 목적입니다. 비폭력직접행동은 그러한 위기를 창출하고 창조적인 긴장을 만들어 계속 협상을 거부해 온 공동체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행동은 그 문제를 극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사회가 더 이상 그 문제를 모른 체 할 수 없도록 하는역할을 합니다."



게임들: 이 인용문을 대자보에 적어라. 그룹에게 인용문에 등장하는 위기, 창조적인 긴장,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캠페인에서 문제를 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라. '비폭력행동의 단계들'참조.

♪ 화해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폭력은 때때로 그것과의 화해를 시도한다.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사회의 하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헌장) 우리는 윈-루즈(win-lose)보다 윈-윈(win-win)을 위해 활동했던 적이 있었는가? 화해는 공공의 것인가 개인적인 것인가? (몇몇 성공적인 미국

시민권운동 비폭력캠페인에서 백인회사원들은 레스토랑 통합이 부정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 공식발표 없이 마무리 된 것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다른 사례들에서 공개적으로 통합을 발표하는 행사가 오히려 시스템의 인종차별 철폐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 축하하기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이룬 것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고 혹은 다른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집단적인 평가는 필수적이다. 우리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해 문서화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 목표를 위해 다시 걸음을 디딜 때 참고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갖게 된다. 만약 주요 활동가들이 피곤하거나 에 너지를 소진했다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보지 못할 수 있다. 또 몇몇 강박적인 유형의 활동가들은 캠페인이 정체되어 있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평가

우리가 전략적인 비폭력캠페인을 발전시킬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은 아주 많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 비폭력의 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법, 우리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단계들을 살펴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를 강화하고 힘을 부여한다. 캠페인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마지막에 한 차례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전체를 통해 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해놓고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 끝나고 평가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는 수가 있다. 우리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모임, 우리 결정 및 우리 활동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사례연구의 기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공적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전략 및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때문이다. ('평가' 및 '캠페인 사례연구 가이드' 참조)

비폭력 행동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글쓴이 : 로버타 베이직(Roberta Bacic, 클렘 맥카트니Clem McCartney의 도움을 받았음)

들어가며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게 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반응하여 행동하고 저항하며 변화를 도모하게끔 자극을 준다. 우리행동의 원동력인 이러한 현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또한 타인의 문제일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행동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우리는 운동의 결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을 배양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스로를 좀먹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의 과정에서 맞닥뜨릴 예상치 못한 감정들과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활동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들

활동을 통해 대외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낼 결심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상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들에 직면하게 된다. 불안정하고 불투명해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체포에 대한, 혹은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고문, 불법집회에서 연행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배신을 당하는 두려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서오는 두려움, 미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약 연행이 된다면 어떡하지?), 전화 위협이나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든 혹은 잘 대처하기 위해서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노하우를 알아야 한다. 자신감/동지애, 잘 준비된 트레이닝, 감정적인 준비/공유의 이 3요소는 이와 관련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상황들

● 두려움에 직면하기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해야할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곧잘 연행, 구속,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이나 다른 인권침해 사항들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다른 사회보다 이러한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나 국가의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공권력이 특별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물론 사람들은 약간의 걱정과 불안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해질 고통과 불편함에 대해 일정

한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감정들은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감정들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감정들을 대면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들은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든다. 예를 들어, 비폭력행동의 현장에서 급박하게 달려야 하는 상황이 닥쳤는데 다른 대처 방식에 대한 준비가 없이 단순히 사람들을 따라 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규율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경찰은 이 때를 노려 공격을 해올 것이다. 따라서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 논리적, 그리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트레이닝 과정에서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연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두려움 극복하기' 활동 참조.

◎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기존의 지배적인 여론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과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중 앞에 서서 주장을 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행동은 국가에 맞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여론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시위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 통념 혹은 주장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좀 더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침묵의 증언자가 되어 서 있는 '위민인블랙(Women in Black)' 소속 활동가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증언자라는 형태의 행동은 이제 세르비아나 콜롬비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출현하고 있다. 이 경우에 다른 동료와의 연대감은 특히나 더 중요성을 갖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연대감은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있던 다른 감정들을 좀 더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자신감이 넘쳐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들이 인정하고 맞닥뜨려야만 하는 내면의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다. '갈등상황 역할놀이' 활동 참조.

● 심리적 고통에 맞서는 연습

다른 위험이나 결과들은 좀 더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방관자들이나 공권력을 접하면서 때로는 조롱과 경멸, 굴욕감 혹은 짜증의 감정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여기서 다시 앞서 언급한 '위민인블랙'의 사례를 보자. 침묵의 증언자로서 활동가들이 서 있을 때 성난 대중들은 그녀들에게 침을 뱉거나 욕을 했지만 그녀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일체의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레이닝의 하나인 '롤 플레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맞닥뜨릴 상황에서 겪게 될 감정들을 미리 경험하는 한편 나와 마주하게 될 상대의느낌과 두려움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 하자면, 비폭력행동에서 자신감과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감정들은 실제 행동 이전에 리허설을 미리 해보는 과정에서 강화되기도 한다. 한편 우리 그룹이 맞닥뜨릴 좋지 않은 여론들은 앞서 기술했던 감정들보다는 좀 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여론은 당장 행동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행동에 대해 왜곡 혹은 비방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 때

문에 우리의 원래 의도나 동기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련의 굴욕감이나 모욕감에 대해 스스로 준비를 잘 한다면 실제 맞닥뜨렸을 때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상대 집단의 역할을 경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느낌들

종종 시위대들이 길거리 연극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집단이 행하는 역할을 재현해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때 상대 집단 역을 맡은 사람들은 굴욕감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많은 그룹들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과 그 곳을 지키는 경비대의 역할을 재현하는 길거리 연극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 연극에서 '수감자' 역을 맞은 사람은 정말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한편 '경비대'역을 맞은 사람은 그 역에 너무 몰입해버린다거나 혹은 극도의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다. '수감자'역이든 '경비대'역이든 그 때 발생하는 감정들은 퍼포먼스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결코 유쾌한 감정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참여자들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퍼포먼스가 끝난뒤에는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사례는 공장식 농장에 항의하는 행동으로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몸을 이용해 도살된 고기를 상징하는 시위를 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통해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신에 그들 스스로가 만든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 환멸 혹은 회의감

가끔은 행동 현장에서보다 비폭력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행동이 끝난 후에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2003년 2월 15일 일어난 대규모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는 전쟁을 멈추지 못했다. 이 때 우리의회의감은 강렬해진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자각을 하면서 사기는 저하되었다. 그들은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과연 우리의 시위는 의미가 있었을까?" 이러한 회의감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 있을 반전시위나 혹은 다른 행동들에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멸 또는 회의감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동이 있을 때마다 끝나고 난 뒤 그 행동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고 평가를 하면서 이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 페이지 참조) 우리는 우리의 기대수준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상대 집단의 예상치 못한 환대에 대처하는 법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끝난 상황도 문제지만, 한편으론 역설적이게도 상황이 긍정적이거나 성공적으로 보일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공권력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매우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권력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고려하고 수용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삼엄한 대치상황만 준비했지

이처럼 예측과 다르게 상대쪽에서 너무나 쉽게 나와버릴 경우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긴장 속에서 발산된 우리 몸 안의 아드레날린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시스템을 좀 더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운동은 보통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에 맞서 더 단결하게 되고, 반대로 그러한 압제가 없으면 오히려 운동의 힘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서의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고 연습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맞닥드렸을 때 우리는 좀 더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안의 호전성이 강화될 때 대처하는 법

비폭력행동의 과정에서 상황이 격렬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을 다들 한번씩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호전성은 단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경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특히나 그들이 우리를 과격하게 대할 때 분노는 치밀어 오른다. 설령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 어느새 자리잡은 공격적인 감정은 우리스스로를 불안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 때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시위대들이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적절하게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격렬해진 그들과 함꼐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현장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원래계획대로의 행동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런 상황에선 여유롭게 고민할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리 트레이닝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및 '물 플레잉' 활동 참조)

서로 다른 맥락에 대한 고려

북반구 지역에 한정해본다면, 우리는 보통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혹은 문화권 속에서 시위를 벌이게 될 것이다. 혹은 권위적인 체제 하에서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꼭 시위를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 중에서 유독 시위대들에게 거칠게 대응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가능한 행동의 선택지나 한계를 논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그 사회가 얼마나 개방되었는지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폐쇄적인 사회의 경우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하는데 왜냐하면 반체제인사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전혀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나라에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시스템을 통해 인권 침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편 한 사회의 문화도 중요한 변수인데, 예컨대 어느 문화권에서는 국가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사회에서는 근대화에 대한 압력이나 타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

일 수도 있다. 이런 곳들에서는 시위나 데모가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결론

우리가 비폭력행동의 과정에서 겪게 될 반응과 감정들에 대해 미리 잘 준비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감을 높이는 한편, 우리 행동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분석하는 논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싸움을 좀 더 지혜롭게 지속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생 안에 달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만약 우리가 행동에서 맞닥뜨릴 문제들에 대해 잘 대비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운동은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용기를 잃고 포기를 하거나혹은 이미 존재하는 주류적인 시위방식이나 무력의 사용처럼 비생산적인 시위방식을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좀 더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고민없이 단지 머릿수만 따지는 시위를 계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하는 투사로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운동은 하는 것은 원래의 목표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우리의 아까운 에너지만 좀먹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모하고 맹목적인 시위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킨다. 만약 우리가 불의에 맞서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행동에 대해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본다. 그 준비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의 과정에서 맞닥뜨릴 물리적인 위험성과 감정들의 반응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잘 대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운동이 우리의 이상과 조화를 이루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운동의 과정에서 즐겁게 그리고 끊임없이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평화에 기회를 열어두자. 우리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전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나무 그리기

<u>활동명</u>: 나무 그리기 소요시간: 최소 30분

활동의 목적 : 한 문제의 속성과 구성요소들을 분석, 정의하고 긍정적인 대안들을 떠올려 보는

것.

활동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문제나무 설명하기:

뿌리, 줄기, 열매가 달린 가지 모두를 포함한 나무를 하나 그린다. 이 나무는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할 대상이 되는 문제를 상징한다. 사람들에게 이 나무(문제)의 뿌리(원인), 열매(결과) 그리고 줄기(이 문제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혹은 기관)를 규명해보라고 말한다. 이 나무(문제)의 '토대'가 되는 토양(근본원인)을 추가할 수도 있다.

건강한 나무:

우리가 가꾸고 싶은 건강한 나무는 무엇인가? 그러한 건강한 나무를 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뿌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라내야 할 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어떤 구조를 개발해야 하는가? 저항의 대상은 무엇인가? 뿌리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 토양에 필요한 가치들은 무엇인가? 건강한 나무를 가꾸고자 하는 목표, 부실한 나무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논의해보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문제나무 분석하기:

나무 줄기에 있는 기관 중에 우리 그룹의 운동 대상이 되는 것을 고른다. 또 다른 나무를 하나 그려서 그 기관의 뿌리와 열매를 살펴본다. 위에 제시된 질문들을 활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거나 34쪽, 비폭력캠페인 기획하기 장에 있는 질문들을 활용해보자.

권력축 분석하기

활동명 : 권력축 분석하기

소요시간 : 최소 30분

활동의 목적

우리가 전복하고자 하는 권력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축들을 규명하는 것. 권력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축들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권력축의 약점들을 찾아보는 것.

활동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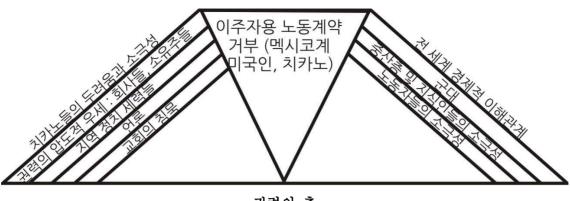
- 권력축 그리기:

- ① 역삼각형 하나를 그린 다음 이를 지탱하는 축들을 그린다. 역삼각형 안에 우리가 논의할 문제의 이름을 적는다. 하나의 기관이나 부당한 가치관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예, '전쟁')
- ② 이 역삼각형(문제)을 지탱하고 있는 축들에 대해서 적어나간다. (예, 군대, 군수산업, 애국시민들) 각각의 축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적어본다. (예, 군대 안에는 다시 명령체계, 군인, 퇴역군인, 군인가족과 같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은 우리가 권력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접근 툴이 된다.
- ③ 각 축들의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원리들을 적어본다. (예, 성차별주의, 탐욕, 거짓말)

- 권력축 분석하기:

우리 그룹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의 축을 결정한다. 이 결정과정에서는 그룹의 목표를 고려하자. 다른 역삼각형 하나를 더 그린 후에 지금 고른 대상의 이름을 적어 넣자. 그 다음에는 이 역삼각형을 지지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시 분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앞으로 있을 비폭력 행동의방법을 고민하는데 기초 작업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역삼각형을 붕괴시키는 것은 언뜻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론 거꾸로 된 삼각형의 모습은 권력구조를 붕괴시키기 위해 꼭 모든 축들을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축 한 두개만 무너뜨려도 전체 권력구조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축

우리 편 찾기

<u>활동명</u>: 우리 편 찾기 소요시간: 최소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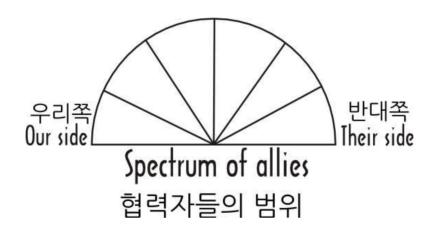
활동의 목적 :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의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기 위해.

상대집단에게 우리의 생각을 늘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우리 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고민해보기 위해.

복잡하고 흥미로운 운동의 작전짜기(strategising)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활동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신문을 활용하여 사회 변화를 원하는 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집단의 사례들을 찾아본다. 화살표를 이용하여 변화를 원하는 집단과 변화에 반대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표시해본다. 한 사회(혹은 마을 혹은 국가)에는 보통 무수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이 스펙트럼을 표현하기 위해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반원 모양의 도형을 그린다. (그림 참조) 이 반원의 지름 양 끝은 각각 가장 상대편과 가장 우리 편을 의미한다. 같은 방식으로 양 끝점들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편, 그 다음으로 가까운 편 혹은 반대로 우리와 좀 덜 적대적인 집단, 아주 적대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원의 중간에 있는 그룹은 중립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운동과 관련한 이슈를 하나 정한다. 만약 이 트레이닝의 참여자들이 활동가가 아닌 일반 참여자들이라면 사람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혹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하나 선정한다.

주제를 선정했으면 이 정해진 주제와 관련한 운동 목표를 하나 정한다. 그리고 사회의 어느 집단들이 우리에게 가장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일지 혹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필요하다면 참여자들에게 몇 가지 단체의 사례들을 제시해 준다. 예컨대, '노조', '빈민집단', '상공회의소' 등. 이 집단들이 스펙트럼의 어느 위치에 속할지 정했다면 이제는 그 집단들을 반원위에 적어 넣는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 있다면 어째서 그러한지 이유를 논의해보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논의한다. 그리고 반원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움직인 집단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논의해본다. (예컨대 현역군인과 퇴역군인들은 전쟁 초기에는 전쟁을 지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좋은 소식 : 대부분의 사회변혁 운동들을 보면, 우리의 관점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꼭 관철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반원에서 몇몇 집단만 혹은 전체적으로 약간씩만 우리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 비록 반원 맞은편에 있는 강경집 단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위 반원에서 나머지 집단들이 한 칸씩만 우리 쪽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운동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위 반원에 있는 집단 중에서 어떤 집단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집단을 타겟으로 삼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자. 우리와 연결고리가 있는 그룹 혹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어디인가? 어떤 그룹들이 우리의 영향력 바깥에 존재하는가? 우리 그룹의 목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적당히 설득할 수 있는 집단은 어느 집단인가?

이 활동을 끝마치는 데에는 최소 20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반원을 채우고 관계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의 출처: http://www.trainingforchange.org/spectrum of allies"

두려움 극복하기

활동명 : 두려움 극복하기

소요시간 : 1시간 혹은 그 이상

활동의 목적 : 두려움의 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것.

활동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참여자들에게 본인이 공포를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볼 것을 제안한다. 소집단으로 나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소그룹 내의 한 사람이 참여자들이 말한 두려움의 감정이 어떤 결과들을 야기했는지를 받아 적는다. 이후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중심적인 생각들을 모아낸다. 또 다른 옵션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공포를 느꼈던 상황을 그려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그 당시의 사실관계만 적을 것이 아니라 당시 개인이 가졌던 생각, 느낌, 몸의 변화, 반응 등과 같은 개인적인 부분들도 다루도록 한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들과 그 방법들의 유용성이나 가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활동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두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되돌아 보며 앞으로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 신뢰형성 게임

활동명 :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 신뢰형성 게임

<u>소요시간</u> : 30분 활동의 목적 :

불안감, 공포심을 들게 만드는 상황에 주목하고,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동방식 / 촉진자가 유의할 점 :

6~7명이 하나의 촘촘한 원을 만들고 그 중 한 사람이 원 중심에 자리잡는다. 가운데에 서있는 사람에게 발을 바닥에 고정시킨 뒤에 눈을 감고 몸을 아무 한 쪽으로 쏠리게 하라고 지시한다. (마치 바람에 나무가 흔들거리는 것처럼) 원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손을 앞으로 내민 다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이 자신에게 기울어질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다른 쪽으로 밀어내라고 지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을 만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나무'가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몇 분에 한번씩 '나무' 역을 교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 가운데에 차례로 서보고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씩 원안에 서보았다면 이제 큰 종이 위에다가 각자가 이 활동에서 느꼈던 것들을 적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 참여자들이 느꼈던 것들을 두려움과 연결을 시켜본다. 사람들이 종이에 써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던 상황이나 그 두려움의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두려움이 유발하는 결과들을 정리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활동을 끝마친다.